

News

은행에 대출문의 급증... "당국 압박이 가수요 부를수도"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 NH농협은행 등 아예 일부 대출 상품 판매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불안 가중... 가수요 조짐까지 보임
일단 KB, 신한, 하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창구를 닫을 가능성은 낮아...

한은에 담보잡힌 8조 풀려...은행, 대출여력 숨통 트인다

매일경제

한은에 납입되어 있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중 실제 차액결제금액은 담보로 분류하되 나머지 금액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 추진
은행들은 은감원의 결정 환영... 은행들의 LCR가 높아지기 때문... 시중은행 중 한 곳은 5~6%p LCR 상승 효과가 기대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중금리 한정"...논란 지속

한국경제

은행권, 대한대출 플랫폼에 대해 신용대출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해... 10월 출범 차질 빚을 우려 제기
은행권은 금융소비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 조건도 빅테크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카카오페이도 접은 P2P 제휴... '각자도생' 나선 P2P 금융사

블로터

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중단으로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상품 소개하던 P2P업체들의 판로 좁아져...
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1개월가량, 온투법 1년 유예기간 26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판도 변화 예고

금리 인상 전에 서둘러라...보험사 자본확충 릴레이

아시아경제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서두르는 중... 채권발행에 부담될까 서두르는 중
K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두 차례 후순위채 발행, 교보생명 다음달 최대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보험사도 가계대출 옥죄기 본격화...생·손보험회, 임원회의 긴급 소집

이투데이

금융당국이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출도 관리 중
23일 생명, 손해보험협회 가계대출 관련 임원회의 화상 소집... 관리를 잘해달라는 당부 차원 회의

미래에셋, 美 식물성고기 벤처 3천억 추가 투자한다

매일경제

미래에셋그룹, 미국 대체육 전문 벤처기업 임파서블 푸드에 3,000억원 추가 투자... 2011년 스탠퍼드대 출신 화학자 패트릭 브라운이 세운 대체육 전문 회사
자기자본이 10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 확대해 나갈 방침

더 과감해진 '빚투'... 증권사 신용융자 25조 넘었다

조선일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산 후 추가 상승에 따른 차익 노리는 신용거래 용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불어나는 주식 빚투 현상
미수거래 규모 4,44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00억 원 가까이 증가... 단타 매매의 수단으로 활용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